

2004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주제발표 | 장애학생 사교육비 실태 보고

2004 장애학생 사교육비 실태조사 발표

- 주 최 : 장애인교육권연대(edu.sy.to). 에이블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일 시 : 2004년 6월 23일 (수) 10:00-12: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004 장애학생 사교육비 실태조사 발표

- 주 최 : 장애인교육권연대(edu.sy.to). 에이블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일 시 : 2004년 6월 23일 (수) 10:00-12: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표 순서

사 회: 김 형 수 (장애인교육권연대)

- 개 회 사.....김경애(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준)공동대표)
- 인 사 말.....박경석(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장혜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사 업 개 요.....백종환(에이블뉴스 편집국장)

<사 례 발 표>

- 장애유아 사교육비 실태
- 초등학령기 사교육비 실태

<주 제 발 표>

-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제언

.....도경만(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

<질 의 및 응 답>

<폐 회>

장애학생 사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장애인 교육권 연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필요성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은 현대사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임무이자 역할이기에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기본법등에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규정을 해놓았다.

장애학생의 교육역시 특수교육진흥법등에서 유치원과 고등학교과정은 무상교육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법적규정과는 달리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은 당사자 및 가족이 감당해야할 천형으로 인식되어 교육에 있어서 대부분의 책임을 장애인을 둔 학부모가 짊어지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의 교육과 치료를 위하여 부산에서부터 매주일 한번씩 서울까지 원정을 다녀야 하는 부모에서부터 이민을 생각하는 부모님들까지 우리사회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하여 장애당사자와 부모님들이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교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및 학부모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기에는 장애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편차와 학부모의 경제적인 편차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차별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학생사교육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객관화 시키고 장애인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화 시키고 객관 타당한 근거자료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나. 목적

이러한 필요성속에서 실시한 본 실태조사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장애학생 교육에 있어서 사교육의 실태를 구체화 하고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부담의 정도를 객관화 하여 그 정도를 밝히고 사교육비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2. 연구방법

가. 조사방법

본 조사는 2004년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지역의 장애인부모단체등에 의뢰하여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1] 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모 집 단	2004년 6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조 사 기 간	2004년 5월 27일 ~ 6월 14일
표 본 크 기	211명
표 본 오 차	±6.7P
조 사 방 법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조 사 기 관	(주)한길리서치연구소

나. 조사대상

취학전에서 고등학교까지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 2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변인은 자녀의 특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조사대상 자녀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대상의 자녀 특성에 따른 분류

대상	요인별	수	비율	
자녀	학교급별	취학전	19명	9.1
		유치원	42명	20.1
		초등 1-3학년	73명	34.9
		초등 4-6학년	55명	26.3
		중학생	17명	8.1
		고등학생	3명	1.5
	지역별	서울	102명	
		광역시	37명	
		도	72명	
	장애별	지체장애	6명	2.9
		정신지체	85명	40.7
		발달장애	70명	33.5
		뇌병변장애	13명	6.2
		청각장애	5명	2.4
		기타	30명	14.3
	비고	*장애별 기타유형: 언어장애 5명, 정신장애 3명, 중복장애 18명, 시각장애 2명 미표시 2명		

다.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3. 조사연구의 한계점

본 조사연구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점은 전국 16개 시.도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지역에 국한(서울, 경남, 경기, 경북, 광주)함으로써 장애인을 자녀로 둔 전국단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일정정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둘째로 본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시단위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들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느끼는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셋째로 본 조사에 응한 학부모들의 자녀 학교 급별의 분류에 있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집중됨으로 인하여 중등과정(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느끼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II. 연구결과

1. 사교육 현황

자녀를 사교육기관에 교육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어떤 교육기관에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교육기관형태

전체 응답자 211명중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84.8%로 177명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역별로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는 조사대상 100% 모두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신지체 86%, 발달장애 81.4%, 뇌병변장애 69.2%, 중복장애 88.9%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장애영역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급별 분류에서 특이한 점은 취학전 아동의 100%(19명) 모두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 과정의 90.5%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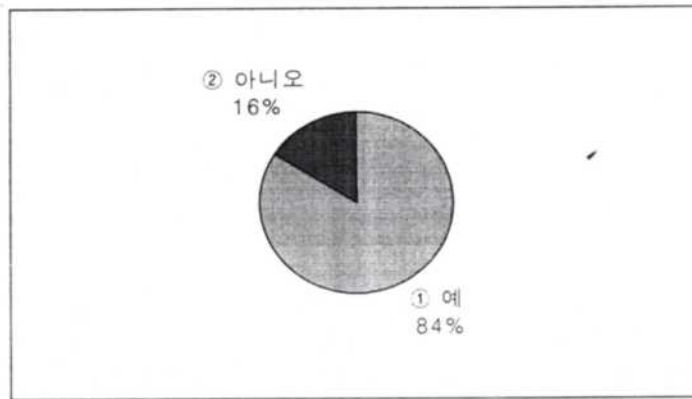
교육기관의 형태로서는 56.5%와 55.4%의 대상자들이 복지관과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관과 사설기관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1] 사교육 유무

		사례수	①예	②아니오
전체		211	84.8% (177명)	15.2%(34명)
장애 유형별	지체장애	6	100%	0
	정신지체	86	86%	0
	발달장애	70	81.4%	18.6%
	뇌병변장애	13	69.2%	30.8%

	청각장애	5	100%	0
	기타	31	88%	12%
학교 급별	취학전	19	100%	0
	유치원	42	90.5%	9.5
	초등 1-3학년	73	83.6	16.4
	초등4-6학년	55	80	20
	중학교	17	76.5	23.5
	고등학교	3	66.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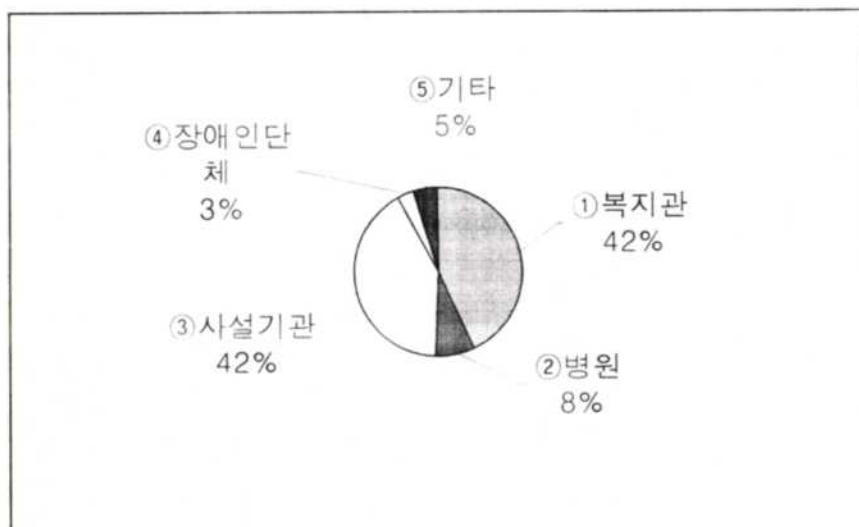
[그림 1] 장애학생 사교육 유무



[표 2-2] 사교육을 받는 기관(중복응답)

	사례수	①복지관	②병원	③사설기관	④장애인단체	⑤기타
전체	177명	56.5%	10.2%	55.4%	4%	6.2%

[그림 2] 사교육을 받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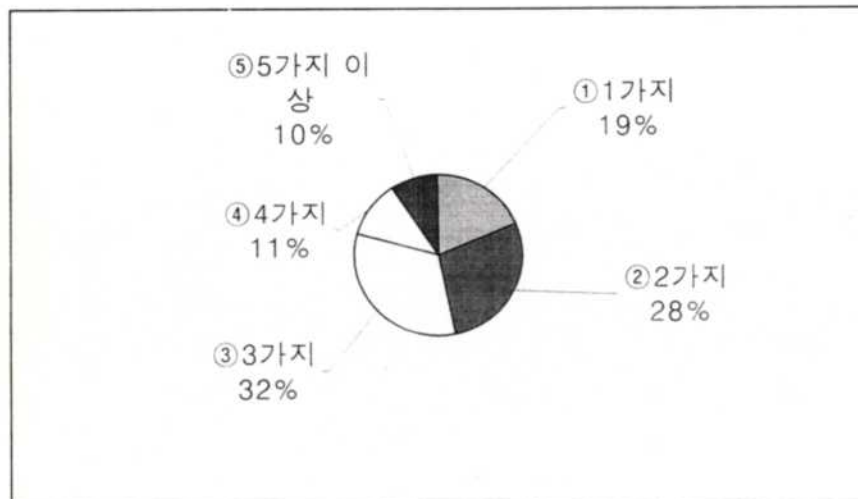
나. 사교육의 실태

여러 가지의 사교육중에서 몇 가지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라는 조사에서 3가지(32.8%), 2가지 (27.7%), 1가지(18.6%), 4가지(11.3%), 5가지 이상(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나타난 점에서 학부모들 중 3가지 이상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53.6%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9.5%가 5가지 이상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표 2-3] 사교육을 받고 있는 종류 수

	사례수	①1가지	②2가지	③3가지	④4가지	⑤5가지 이상
전체	177명	18.6%	27.7%	32.8%	11.3%	9.5%

[그림 3] 사교육을 받고 있는 종류 수



다. 사교육의 유형별 분류 및 사교육비 지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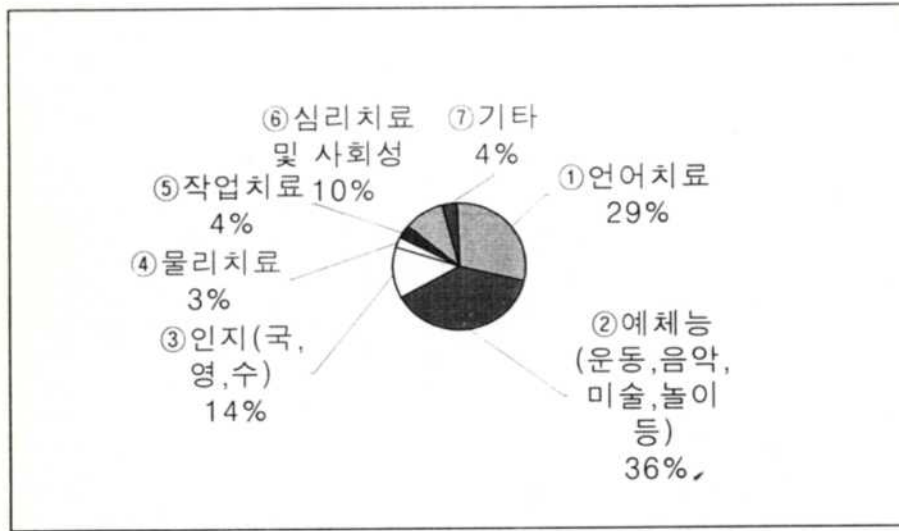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의 구체적인 분야를 모두 기입하도록 하였을 때 대략 15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다시 15가지의 분야를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이한점은 일상적인 치료교육(물리, 언어, 작업, 심리.)이외에 예체능 및 여타의 분야들이 치료라는 이름으로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으며 대부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사교육의 비중은 치료교육임을 알 수 있다.

[표 2-4] 받고 있는 사교육의 유형(중복응답)

	사례수	①언어 치료	②예체능 (운동, 음악, 미술, 놀이등)	③인지 (국, 영, 수)	④물리 치료	⑤작업 치료	⑥심리치료 및 사회성	⑦기타
전체	154명	64.3%	81.1%	29.9%	6.5%	7.8%	22.7%	7.8%

[그림 4] 받고 있는 사교육의 유형 (중복응답)



라. 사교육비지출의 순위 및 비용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교육의 분야는 어느 것이냐 라는 질문에 언어치료 46.4% 물리치료 4.6%, 기타치료비용에 12.6%, 교육비에 33.8% 등으로 답을 했다.

응답자의 63.6%가 언어치료 및 물리치료 기타치료교육의 영역에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보았을때 사교육에서 치료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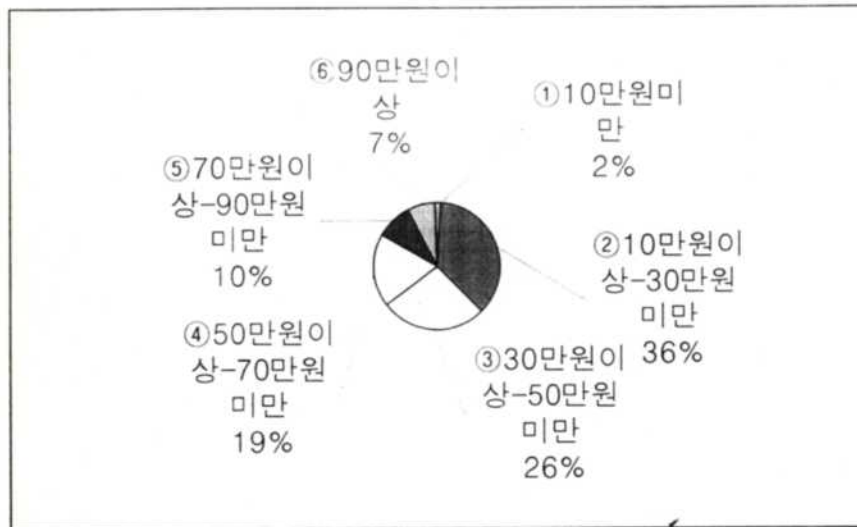
또한 한달에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액수를 묻는 조사에 30만원 미만은 37.9%에 불과하였으며 30만원 이상~90만원 미만은 54.8%, 심지어 9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도 7.3%에 달했다.

표를 살펴보았을 때 한 가지 유의점은 공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 62.1%가 매달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47.4%의 가정에서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5] 월별 사교육비 지출액

		사례수	①10만원미만	②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③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④50만원이상 -70만원미만	⑤70만원이상 -90만원미만	⑥90만원이상
전체		154명	1.7%	36.2%	26%	19.2%	9.6%	7.3%
학 교 급 별	취학전	19	0	15.8	31.6	15.8	26.3	10.5
	유치원	38	0	28.9	23.7	15.8	13.2	18.4
	초등1-3	60	3.3	40.0	25	21.7	5	5
	초등4-6	44	2.3	36.4	29.5	20.5	9.1	2.3
	중학교	12	0	58.3	25	16.7	0	0
	고등학교	2	0	100	0	0	0	0

[그림 5] 월별 사교육비 지출액



마.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장애학생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유에 **응답자의 79.7%에 학부모님들이 “공교육기관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을 해주셨다.

반면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3.9%, 사교육의 질이 높아서 7.2%, 기타 9.2%로 답을 해주셨다. 이는 자녀의 장애유형별과 학교급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답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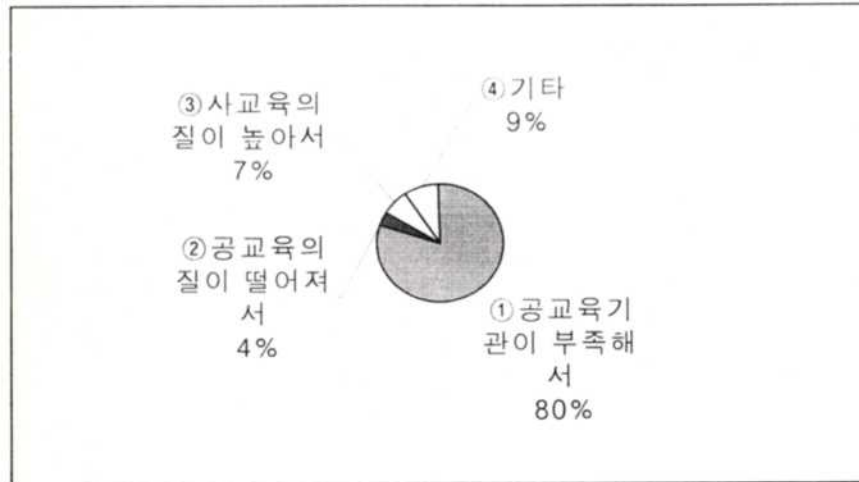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이 공교육기관의 절대부족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부터 누차 지적되어온 사항이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표2-6] 사교육비 지출 이유

	사례수	①공교육기관이 부족해서	②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③사교육의 질이 높아서	④기타
전체	153명	79.7%	3.9%	7.2%	9.2%
취학전	15	66.7%	6.7%	20%	6.7%
유치원	34	88.2%	2.9%	2.9%	5.9%
초등학교	90	80.7%	3.2%	5.9%	10.2%
중학교	11	72.7%	9.1%	9.1%	9.1%

[그림 6] 사교육비 지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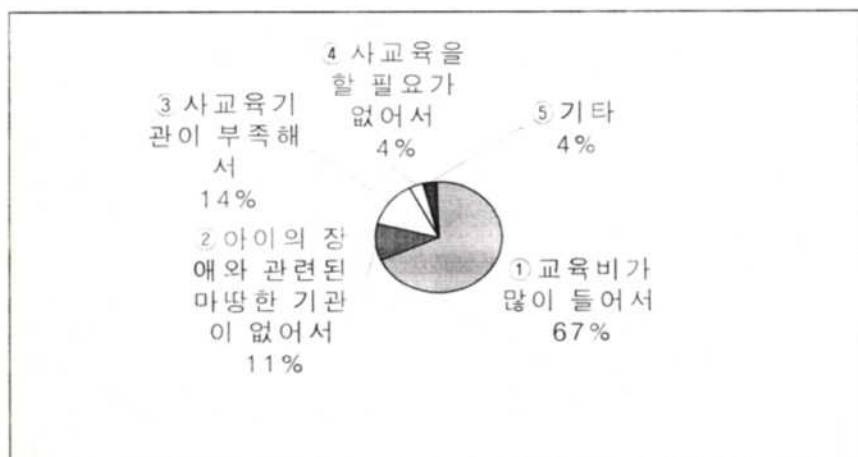
바.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조사에 응한 211명의 학부모님들 중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학부모는 15.2%(28명)였다. 이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응답한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로 67.9%의 부모님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에 응답했고, 25%의 부모님이 “아이의 장애와 관련하여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거나 교육기관이 부족해서”에 응답을 했다.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6%에 불과 했다.

[표 2-7] 사교육 받지 않는 이유

	사례수	①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②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③사교육기관이 부족해서	④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서	⑤기타
전체	28명	67.9%	10.7%	14.3%	3.6%	3.5%

[그림 7]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III. 결론 및 제언

장애학생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좀더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결론

가. 공교육기관의 대폭 증설

장애학생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된 장애학생보다 선정되지 않은 장애학생들이 더욱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공교육기관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84%의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조기특수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취학 전 아동의 100%, 유치원과정의 90.5%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 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공교육기관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정도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명시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규정을 굳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교육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큰 방법은 공교육기관의 대폭적인 증설과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가계수지동향”에서 명시한 도시근로자 평균근로소득이 206만 5천원으로 비장애학생 1인당 교육비가 22만 5000원으로 책정된 것과 비교했을 때 본조사에서 밝혀진 장애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부담은 2배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치료교육의 강화

사교육의 가장 많은 유형으로 언어치료와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치료교육적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치료교육을 장애인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규정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치료교육이 절대 부족함을 반증해주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라 할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37개 특수학교에 치료교육교사 320여명이 25,000여명의 장애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현실과 26,000여명이 교육받고 있는 특수학급 및 통합교육 현장에는 치료교육교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치료교육이 중요한 취학전과 유치원, 초등 저학년 과정에 치료교육이 집중되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교육기관에서 치료교육의 획기적인 강화만이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 장애인교육의 공적인 시스템의 확립

대부분 사교육을 받는 기관으로 복지관과 사설교육기관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매달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사교육비의 과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거나,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공적인 시스템의 확립이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치료와 교육적 지원의 강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장애유아에서부터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유아 교육기관 및 초·중등교육기관에 특수교육교사의 배치와 치료교육교사의 배치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증설과 치료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공적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본 조사는 취학전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과정에 있는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통해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공교육기관의 절대부족과 치료교육이 지원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장애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또한 치료교육의 지원, 특수교육지원 등의 법적규정과는 무관한 지금의 현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기관이 장애인교육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장애인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바라보지 않고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서 장애인교육을 바라보았기에 특수교육진흥법에 기본적인 권리로 명시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규정 및 치료교육지원의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증설과 아울러 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복지지원 등이 기본적인 권리로써 제공되는 국가차원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3. 장애학생 학부모 정부에 바라는 것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 결과 다음 같이 나타나 공교육기관의 확충과 장애 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수 140명 중 공교육기관의 확대와 증설이 필요하다 46명(32.9%), 장

애학생 사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43명(30.7%),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해야한다 17명(12.1%), 특수학교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을 지원해야 한다 16명(11.4%), 치료교사를 배치하고 지원해야한다 13명(9.3%), 기타 5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수 140명 중 장애학생 학부모가 공교육기관의 확충과 장애학생 사교육비 지원에 응답한 수가 89명(63.6%)로 나타나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장애학생 교육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표 3-1] 장애학생 학부모 정부에 바라는 것

	의견 내용	의견 수	비율
정부에 바라는 것	공교육기관 확대	46	32.9
	장애학생 사교육비 지원	43	30.7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17	12.1
	특수학교(급), 일반학급 지원	16	11.4
	치료교사 배치 지원	13	9.3
	기타	5	3.6
	총계	140	100

[부록 1] 장애학생 사교육비 실태조사 설문지

장애아동 사교육 실태 조사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는 45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신문입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2주에 한번 종이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와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장애인교육 희망찾기'라는 기획특집을 하면서 장애아동을 기르는 가정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문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신장하고, 복지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문의:02-792-7785)

■ 본 설문에서 지칭하는 사교육이라함은 기본적인 학원 및 과외비용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지출하는 각종 치료교육 및 복지관 크리닉등에서 학부모님의 부담으로 행해지는 영역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1. 자녀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무엇입니까?

- ① 지체장애 ② 시각장애 ③ 청각장애 ④ 뇌병변장애 ⑤ 정신지체 ⑥ 발달장애 ⑦ 언어장애
⑧ 정신장애 ⑨ 기타 ()

2. 자녀의 교육 과정은?

- ① 취학 전 ② 유치원생 ③ 초등학생(1~3학년) ④ 초등학생(4~6학년) ⑤ 중학생 ⑥ 고등학생

3. 자녀가 현재 복지관이나 사설기관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 4번부터 9번까지는 질문부터는 사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분은 10번 문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교육 기관이 부족해서 ②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③ 사교육의 질이 높아서 ④ 기타()

5.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주로 어떤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복지관 ② 병원 ③ 사설기관 ④ 장애인단체 ⑤ 기타 ()

6.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몇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① 1가지 ② 2가지 ③ 3가지 ④ 4가지 ⑤ 5가지 이상

7. 현재 주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8. 한 달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④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⑤ 7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⑥ 90만원 이상

9.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 분야는?

→

10.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부모님만)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② 사교육 기관이 부족해서 ③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④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서 ⑤ 기타()

11. (모두 응답해 주세요) 사교육 문제 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교육권연대

[부록 2] 설문 질문 11. 사교육 문제 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바라는 점

1. 공교육기관 확대

- ▣ 학급증설, 유치부: 아이들의 인성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교육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함. 중등: 갈수록 설치한 곳도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짐, 고등: 더 열악한 환경 장애영역에 맞게 우리아이들이 할만한 것이 없음. 성인: 갈 곳이 없음, 그룹홈을 나라에서 권장해야 함. 임대아파트 무상으로(정신지체/중학생)
- ▣ 공교육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 복지관을 장애 유형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 교육의 질도 높이길 바란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 복지관등 장애인 교육기관의 시설확대.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략 2년에 가까운 대기시간을 가져야 하고, 교육비도 무료로 해주세요(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 교육기관 부족으로 많은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공공 시설등을 활용하여 치료교사 배치하여 이동거리를 줄여주어 부모의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여줘야 한다(정신지체/중학생)
- ▣ 복지관에서 보통 3~4년을 기다려야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치료기관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치료비의 국가보조를 늘려주십시오(정신지체/유치원생)
- ▣ 복지관에서 보통 3~4년을 기다려야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치료기관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치료비의 국가보조를 늘려주십시오(정신지체/유치원생)
- ▣ 재정의 어려움, 모니터 제도 확립, 많은 교육기관(발달장애/유치원생)
- ▣ 각 학교별로 특수교실 배치, 사교육 및 치료비 지원(정신지체/유치원생)
-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복합장애/취학전)
- ▣ 사설 및 공교육기관이 태부족이거나 대기자가 많아 지역이 멀더라도 교육을 받으려 다닙니다. 지역 주변에서 쉽게 교육 받을수 있는 시설이 많기를...(정신지체/취학전)
- ▣ 교육비 지원, 교육기관 설립(정신지체/유치원생)
- ▣ 공교육 기관 확대(지체장애/유치원생)
- ▣ 장애아들을 위한 공교육기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정신지체/유치원생)
- ▣ 특수치료 교사와 기관들이 많이 있기를...(정신지체/유치원생)
- ▣ 정상아들과 통합교육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정상아들이 장애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좀더 철저한 교육이 시행되었으면 좋겠고, 아이의 발달정도에 따라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좀더 많이 생기고 또 중고등학교까지도 그런 학교가 있었으면...(정신지체/유치원생)

■ 많은 복지관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분야가 많았으면 좋겠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장애인 교육기관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장애아동교육기관이 많아지고 교육비 면제(발달장애/유치원생)

■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보조(발달장애/중학생)

■ 근거리에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무상교육이 실시됐으면, 교육기관이 많았으면...(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공교육 기관 확대(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면 좋겠음(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많은 공교육기관을 신설해주고 교육비를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많은 공교육기관을 신설해주고 교육비를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의료보험이 해당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교육기관을 더 많이 만들어야하고, 교육자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정신장애/취학전)

■ 공공치료기관이 적어 치료기관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7-8살만 되어도 치료받을 기관이 없다. 또 학교에 가도 모든 것을 부모들이 학교에 요청해야 됨. 아이들이 치료받을 기관이 많아졌으면(지체장애/초등학생1~3학년)

■ 공공기관을 더 확대시켜 주시고, 한 장소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교육기관이 2~3곳만 되어도 이동하는 불편함과 위험성이 있습니다(복합장애/유치원생)

■ 공교육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저렴한 교육비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개별 교육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발달장애/초등학생4~6학년)

■ 공교육 기관이 많아져서 부모가 지출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면 좋겠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공교육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공교육 안에서 치료교육 받기를 원한다.(발달장애/초등학생4~6학년)

■ 비용과 시설부족으로 사정하며 들어가야 하는 상황임. 기관수를 늘려야 함(발달장애/초등학생4~6학년)

■ 교육기관의 증설과 대폭적인 교육비 지원을 요구합니다(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저렴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길 바랍니다.(언어장애/유치원생)

■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복지관 이용 시 운송수단으로 장애인택시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택시를 많이 증편해주세요(뇌병변장애/유치원생)

■ 실제 장애아동을 둔 부모로서의 고민은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부담이 적게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장

아이의 교육은 단 한가지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절실합니다.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그리고 학습분야등등.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고 적절한 교육 기관을 찾는 것도 상당히 힘들답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

- 졸업후 교육등이 많이 증설되었으면 합니다(발달장애/초등학생4~6학년)
- 졸업후 교육등이 많이 증설되었으면.... 그룹홈 증설도 가능했으면 한다.(발달장애/중학생)
-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보호시설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룹홈 가능할 수 있게 많이 증설했으면 합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우리아이한테 맞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많지 않고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었음 합니다. 공공기관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사설기관의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복지관 같은 기관을 현재보다 10배정도 확대해야 한다.(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공교육 기관이 많아서 가까운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언어 치료사가 가정방문이 가능했으면 합니다.(언어장애/취학전)
- 복지시설의 기관들이 좀더 질적으로 높아졌으면 하고 시설에서도 많은 장애아를 받아서 교육받고 싶다.(정신지체/취학전)

2. 사교육비 정부 지원 필요

- 장애인 부양 지원금 지급. 치료 시설과 특수 교육의 질을 위하여 정부의 투자, 자원 봉사자와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 시급. 장애인 인식 캠페인의 필요성(발달장애/초등학생4~6학년)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러면서 교육비지원까지를 바랍니다(발달장애/취학전)
- 발달을 위한 교육만이라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정신지체/취학전)
-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면...(정신지체/유치원생)
- 치료비를 보험료 적용하여 보다 저렴하게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아이에게 인지, 언어 등을 원내에서 지원해 준다면 많이 해소될 것 같다(뇌병변장애/취학전)
- 세계 혜택이라도 더 받을수 있었으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설기관에서 영수증 발급을 꺼림(발달장애/유치원생)

- 비용이 부담 된다. 복지관 이용을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고 사설기관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발달장애/유치원생)
- 장애아동의 사교육문제는 일반아동의 사교육비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사교육을 시행하는 곳도 그 수가 적은데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정신지체/유치원생)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교육비가 저렴하길...(정신지체/유치원생)
- 풍족한 재정적 지원(발달장애/유치원생)
- 정부가 사교육비를 50%라도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복지관, 유치원, 학교 방과후에 특수교육을 했으면 한다. 복지관 이용은 대기자가 많아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발달장애/유치원생)
-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정도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저렴한 교육비, 앞으로의 재화에 많은 교육이 있으면 합니다.(발달장애/유치원생)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비지원이나 교육센터가 있다면 좋겠고, 특히 유아나 초등분야까지 분류화 시켜서 지원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등생을 위한 치료교사 지원이나 방과후 지원 등이 있겠지요(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장애 등급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해 주세요.(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일반 교육비정도만 했으면 합니다.(자폐장애/유치원생)
- 특수 교육이라 그런지 교육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해서 일반 아이들 사교육비 정도만 했으면 합니다. 각 기관에 비용을 보조해 주었으면 합니다.(자폐아동/초등학생1~3학년)
- 일반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수준의 금액이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비는 너무 비쌉니다.(발달장애/초등학생4~6학년)
- 장애아 엄마는 자녀의 보호 및 교육문제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아의 교육비는 일반 아동들의 교육비보다 3~4배 많이 듭니다.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은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 양육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인생의 즐거움 및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원합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특수교육비는 일반 교육비보다 4~5배 비싸다. 일반 교육비 수준으로 인하 부탁한다.(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특수교육의 세금공제를 일반 학원이나 개인교습에도 확대해주시면...(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교육비 지원, 통합적인 진단 시스템, 한 장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정신지체/유치원생)
- 사교육비 지원, 전문교육을 학교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복합장애/초등학생4~6학년)

장애인교육차별사례주제보고 I 장애 학생사교육비 실태조사 보고

▣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시고, 복지관 시설 및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해주세요(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언어치료: 의료보험 혜택 적용 요함 (뇌병변장애/유치원생)

▣ 치료비 지원(뇌병변장애/초등학생1~3학년)

▣ 교육비 지원과 사적으로 다니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프로그램개설지원. 길에서 버리는 시간들을 보충할 수 있게...(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교육비 지출은 큰데 비해 교육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다. 교육비 지출이 가장경제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의료비 지원이나 의료보험처럼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은 일반인의 남보다 앞서가려고 시키는 사교육 차원이 아니라 우리아이들은 사회적응을 해야하는 절실한 치료교육이기 때문이다.(발달장애/초등학생4~6학년)

▣ 사교육 시설의 인가문제,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국가 자원필요(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언어치료, 체육이든 현재 사설기관 개인등이 하는데 20~30만이다. 이들을 양성화하여 교육비 지원하고 당장 교육비 세금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음. 10만원미만으로 부담되지 않으면 다양하게 실시해 볼 수 있겠다.(발달장애/중학생)

▣ 사설기관의 치료비도 특수교육비로 인정해주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재 일률적으로 치료비가 대폭 인상되어지고 있음.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음. 일반 아동처럼 방과후 프로그램의 높은 질의 다양한 서비스로 이어졌으면 함(지체장애/초등학생4~6학년)

▣ 사교육비지원, 평생교육지원(발달장애/초등학생4~6학년)

▣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개인별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있을 곳이 없다는 점이 매우 심각함 평생교육 필요함(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감면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의 질도 문제지만 사교육비로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사교육비가 너무 커서 생활에 부담이 큼니다. 줄여주시고 방과후 PG와 치료교육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년)

▣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발달장애/유치원생)

▣ 근거자료에 의해서 교육비지원과 교사에 대한 실질적 교육(중복장애/초등학생4~6학년)

▣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함. 보조원 및 장애 아동 가정의 경제적 고려.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어려워 또한 부모와 아이의 갈등 가정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할수 있는 현 생활이 될 수 있도록(정신지체/유치원생)

■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더 효과적인지 시스템이 정부에서부터 진행이 되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에 좋은 치료교육을 받기에 교육비가 많이 들기에 정부에서 사설기관이나 장애아동에 교육비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지체장애/초등학생4~6학년)

■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장애아동에게만 모든 시간과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고 벽차서 치료를 받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심적 물질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아동을 쉽게 포기하고 가정도 위태위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부탁 드립니다.(정신지체/유치원생)

■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의 기본바탕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비장애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장애인들에게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비장애 학생보다 장애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최소한 비장애 학생들 수준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 부모들은 사교육으로 자녀의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극복을 시도하려고 해도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장애의 퇴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학생들의 사교비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발달장애/고등학생)

■ 복합적 장애인 경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언어나 인지 치료등 꼭 필요한 장애분야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되어 너무 부담이 큼니다. 또 취학을 하더라도 어디를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양한 치료기관과 시설,복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장애도 힘든데... 경제적 부담까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치료시설 확충과 치료비인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복합장애/유치원생)

3.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 학교 내에서 개인에게 해당되는 전문인을 초빙하여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복합장애/고등학생)

■ 학교 방과후 기간에 장애아동대상 교육필요(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방과후 활동을 통해 교육비를 줄이고 치료교사를 두어 학교 안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시간낭비 돈 낭비를 막을 수 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학교 안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교육비지출이 적었으면 한다(발달장애/취학전)

■ 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을 일반 아동처럼 장애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는 특수 교육적인 프로그램 개발,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곳에서 실시 될수 있으면 좋겠다(중복장애/초등학생4~6학년)

■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게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학교 교육할 때 재미있게 가르쳐주셨으면...

(복합장애/초등학생4~6학년)

■ 학교 내 방과후 활동을 통해 비용, 이동시간등 절약. 지역사회 내 시설과 연계하여 등록 신청 후 활용. 훈련된 보조원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가정까지 파견하여 해결(발달장애/초등학생4~6학년)

■ 방과후 수업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좋겠다.(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방과후 교육활동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방과후 수업이 하루빨리 체계화되었으면 합니다.(뇌병변장애/초등학생4~6학년)

■ 공교육기관에서 방과후를 많이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운 조건입니다. 복지관을 많이 건립하였으면 합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하루빨리 방과후 프로그램이 체계화 정착화 되었으면 합니다. 졸업후의 갈곳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현재 영유아들은 무상교육등 교육받을 장소도 많고 부모의 부담도 많은 줄어든 현실이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교육비등의 많은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과후의 활성화가 빨리 이루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학교 내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우리 가정의 생활비 30%정도가 아이에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학교 내 방과후 교실활성화 요청, 치료교사 직업재활교사 배치요청, 복지관등에 다양한 교육개발요청 (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방과후 교실을 당장 실시 할 수 없다면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세요(발달장애/초등학생4~6학년)

■ 학교방과후 활동을 지원해 주세요, 사교육비를 지원해주세요(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4.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에 대한 지원

■ 순회교사 파견, 보육교사 비율 상승 필요.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까지 주지 않는 복지관도 있습니다(복합장애/초등학생1~3학년)

■ 공교육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장애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국가자체에서 지금 현 교육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에 홍보와 교육을 해주시고, 먼 미래를 보고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청각장애/유치원생)

■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증대와 교육기관의 셔틀버스 운영(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공교육 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구분하여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선착순이 아닌 성적순으로 교육을 시키니 답답합니다(정신지체/취학전)

■ 유아교육기관뿐 아니라 특히 학교의 교사자질과 장애아동 개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랍. 그저 장애아동 한두 명 정도, 한해 두해 정도 다뤄봤다는 정도로 모든 장애아동을 동일시하여, 특성 있는 장애아동의 기질을 말살하는 교사들의 안일함을 질책하고 싶습니다(정신지체/유치원생)

■ 정부로부터 여러 방면의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 유치원과 학교에 장애아들이 일반아들과 같은 교육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형식적으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무적으로 장애아들을 받아주어야 하며 그 아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교사도 필요하여 장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사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지...(발달장애/유치원생)

■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교사의 질을 높여주고 환경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교통시설이 불편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받기 힘들다(복합장애/유치원생)

■ 통합교육이 보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발달장애/유치원생)

■ 고학력 프로그램 다양화, 중학교도 초등학교처럼 특수학급 많이 지원(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학교에 학습 도우미를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학교 틀 안에서, 필요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길...(발달장애/초등학생)

■ 장애학생에게 더 많은 학교개설과 더 많은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한 학급 인원수를 5~8명으로 줄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복합장애/중학생)

■ 장애 아동의 사교육문제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문제입니다. 장애아동의 교육은 너무도 중요하고 정말 당면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너무 미미하고 전무합니다. 학교교육에서 통합교육을 시킬 때 장애아동의 사교육비 지원, 식사비 보조, 이동할 때의 교통비, 의료비 지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생들에게 방과후 교실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방학중에도 지역 강사들을 초빙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절대 필요하고 특수교사들의 자질문제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정도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특수교사가 너무도 많습니다. 인성조사 필요합니다. 특수교사 평가제도 요구하고 임용시 절대적인 평가 필요합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학급 인원수를 줄여 개인이 알차게 교육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료교사를 많이 늘여서 치료를 좀더 많이 하였으면...(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사설기관이 아닌 곳 곧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체능교육이나 기타 인지 발달프로그램을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개발하여 가르쳤으면 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생활교육을 확

대 실시하여 기본틀에 짜여진 일반학생들의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문치료교사의 적절한 확대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기관의 다방면의 정부의 지원혜택이 요구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족한 개별교육을 사설기관에서 받더라도 간접적인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정신지체/중학생)

■ 특수학급 활용시 보조원 부족부분이고 보조원이 있다해도 담임선생님의 거부하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전 선생님들의 특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승진이나 점수 부여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연결한다면 특수학급 이용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 (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5. 치료교육 지원

■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만 관리해서 알려줄 수 있었으면...(뇌병변장애/취학전)

■ 적절한 치료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매스컴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철저한 홍보와 교육지도(정신지체/유치원생)

■ 장애인 교육을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전환. 통합학교에 치료교사 배치 원함(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우리 어머니들 대부분 이민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많이 이민을 가고 있다. 물리치료만이라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물리치료 장애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지체장애/초등학생1~3학년)

■ 초등학교 치료교사를 배치해주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 치료비를 절약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시간 아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여야 한다. 또 직업교사를 두어야 학교 졸업후 할 일 없는 시간이 없게 졸업후 바로 직업과 연결되어 사회인으로서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정신지체/중학생)

■ 치료교사를 학교내에 배치해서 충분한 손길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후시간에 방과후 프로그램 많이 확충하여 사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아도 할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일반학교 통합을 하더라도 치료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하여서 치료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중증 중복장애아동에게 물리치료는 생존권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조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장애인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일상생활동작 등의 습득으로 신변자립이 가능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익이 되므로, 중증장애아동의 물리치료를 부모의 책임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안에서 조기발견하여 조기개입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중복장애/초등학생1~3학년)

■ 보조교사의 자질문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교사를 학교에 지원해 주세요(복합

장애/초등학생4~6학년)

■ 학교에 치료교사나 방과후 교실이 있어서 아이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 장애 아동 특히 우리아이는 교육보다 몸과 마음을 다듬어 사치에 적응하기 위한 전에 더욱 치중하여 교육 치료를 합니다. 교육이 아무리 안되어 있어도 몸과 마음이 다듬어지면 어른이 되었을 때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가르치는 교육보다 사회생활이나 직업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치료교사가 더 많이 필요함(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치료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음(복합장애/초등학생4~6학년)

6. 기타

■ 특수교육지원센터 제대로 운영, 교육예산 확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실질화(지체장애/초등학생1~3학년)

■ 장애유형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뇌병변장애/초등학생4~6학년)

■ 사교육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고 당연히 관심을 가져줬음 좋겠습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4~6학년)

■ 장애우들의 학령기부터 청장년까지 연계해서 교육받고 사회에서 적응해 생활인으로 자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입을 요구합니다. 교육 직업재활센터의 수혜인이 아닌 장애우의 고른 혜택을 위해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원합니다.(발달장애/초등학생1~3학년)

■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정신지체/초등학생1~3학년)

[부록 3] 장애학생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통계표

문 1) 자녀의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사례수	지체 장애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장애	중복 장애	기타	합 계
		%	%	%	%	%	%	%	%	%	%
■ 전 체	(209)	2.9	2.4	6.2	40.7	33.5	2.4	1.4	8.6	1.9	100.0
□ 자녀교육과정											
취학전	(19)	.0	5.3	5.3	36.8	15.8	15.8	5.3	10.5	5.3	100.0
유치원생	(42)	2.4	4.8	4.8	47.6	26.2	4.8	.0	7.1	2.4	100.0
초등 1-3학년	(73)	4.1	2.7	9.6	38.4	41.1	.0	.0	2.7	1.4	100.0
초등 4-6학년	(55)	3.6	.0	5.5	40.0	32.7	.0	.0	16.4	1.8	100.0
중학생	(17)	.0	.0	.0	47.1	35.3	.0	11.8	5.9	.0	100.0
고등학생	(3)	.0	.0	.0	.0	66.7	.0	.0	33.3	.0	100.0

문 2) 자녀의 교육 과정은?

	사례수	취학전	유치원생	초등학생 1-3학년	초등학생 4-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합 계
		%	%	%	%	%	%	%
■ 전 체	(209)	9.1	20.1	34.9	26.3	8.1	1.5	100.0
□ 장애유형								
지체 장애	(6)	.0	16.7	50.0	33.3	.0	.0	100.0
청각 장애	(5)	20.0	40.0	40.0	.0	.0	.0	100.0
뇌병변 장애	(13)	7.7	15.4	53.8	23.1	.0	.0	100.0
정신지체 장애	(85)	8.2	23.5	32.9	25.9	9.4	.0	100.0
발달 장애	(70)	4.3	15.7	42.9	25.7	8.6	2.9	100.0
언어 장애	(5)	60.0	40.0	.0	.0	.0	.0	100.0
정신 장애	(3)	33.3	.0	.0	.0	66.7	.0	100.0
중복 장애	(18)	11.1	16.7	11.1	50.0	5.6	5.6	100.0
기타	(4)	25.0	25.0	25.0	25.0	.0	.0	100.0

문 3) 자녀가 현재 복지관이나 사설기관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합 계
		%	%	%
■ 전 체	(211)	84.8	15.2	100.0
□ 장애유형				
지체 장애	(6)	100.0	.0	100.0
청각 장애	(5)	100.0	.0	100.0
뇌병변 장애	(13)	69.2	30.8	100.0
정신지체 장애	(86)	86.0	14.0	100.0
발달 장애	(70)	81.4	18.6	100.0
언어 장애	(6)	100.0	.0	100.0

장애인교육차별사례주제보고 I 장애 학생사교육비 실태조사 보고

장애유형	장애유형	(3)	66.7	33.3	100.0
신체장애	신체장애	(18)	88.9	11.1	100.0
기타	기타	(4)	100.0	.0	100.0
□ 자녀교육과정					
취학	취학	(19)	100.0	.0	100.0
유치원	유치원	(42)	90.5	9.5	100.0
초등학교	초등학교	(73)	83.6	16.4	100.0
중학교	중학교	(55)	80.0	20.0	100.0
고등학교	고등학교	(17)	76.5	23.5	100.0
기타	기타	(3)	66.7	33.3	100.0

문 4)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공교육 기관이 부족해서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사교육의 질이 높아서	기타	합 계
		%	%	%	%	%
■ 전 체	(153)	79.7	3.9	7.2	9.2	100.0
□ 장애유형						
장애유형	(5)	80.0	.0	.0	20.0	100.0
신체장애	(4)	50.0	.0	50.0	.0	100.0
지체장애	(8)	87.5	.0	.0	12.5	100.0
뇌병변장애	(61)	80.3	4.9	6.6	8.2	100.0
정신장애	(53)	88.7	.0	1.9	9.4	100.0
발달장애	(5)	40.0	20.0	40.0	.0	100.0
언어장애	(1)	.0	.0	.0	100.0	100.0
신체장애	(14)	64.3	14.3	14.3	7.1	100.0
기타	(2)	100.0	.0	.0	.0	100.0
□ 자녀교육과정						
취학	(15)	66.7	6.7	20.0	6.7	100.0
유치원	(34)	88.2	2.9	2.9	5.9	100.0
초등학교	(53)	88.7	3.8	3.8	3.8	100.0
중학교	(37)	73.0	2.7	8.1	16.2	100.0
고등학교	(11)	72.7	9.1	9.1	9.1	100.0
기타	(2)	.0	.0	.0	100.0	100.0

문 5)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주로 어떤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중복응답분석)

	사례수	복지관	병원	사설기관	장애인단체	기타
		%	%	%	%	%
■ 전 체	(177)	56.5	10.2	55.4	4.0	6.2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6)	50.0	16.7	83.3	.0	.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5)	60.0	.0	60.0	.0	.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9)	77.8	22.2	33.3	.0	.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73)	56.2	6.8	56.2	6.8	5.5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56)	57.1	7.1	50.0	1.8	7.1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6)	33.3	16.7	83.3	.0	.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2)	50.0	50.0	100.0	.0	.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16)	50.0	18.8	62.5	6.3	18.8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4)	75.0	25.0	25.0	.0	.0
□ 자녀교육과정	(19)	31.6	10.5	68.4	.0	.0
□ 자녀교육과정	(37)	59.5	16.2	56.8	2.7	.0
□ 자녀교육과정	(61)	59.0	6.6	49.2	4.9	6.6
□ 자녀교육과정	(44)	63.6	11.4	59.1	6.8	9.1
□ 자녀교육과정	(12)	33.3	.0	50.0	.0	25.0
□ 자녀교육과정	(2)	100.0	50.0	50.0	.0	.0

문 6)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몇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사례수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이상	합 계
		%	%	%	%	%	%
■ 전 체	(177)	18.6	27.7	32.8	11.3	9.5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5)	.0	60.0	20.0	.0	20.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5)	40.0	20.0	20.0	.0	20.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9)	22.2	11.1	33.3	22.2	11.1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73)	23.3	28.8	27.4	9.6	11.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57)	10.5	26.3	40.4	14.0	8.8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6)	16.7	66.7	16.7	.0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2)	50.0	.0	50.0	.0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16)	18.8	25.0	50.0	.0	6.3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유형	(4)	25.0	.0	.0	75.0	.0	100.0
□ 자녀교육과정	(19)	15.8	42.1	15.8	15.8	10.5	100.0
□ 자녀교육과정	(38)	18.4	28.9	23.7	10.5	18.4	100.0
□ 자녀교육과정	(60)	15.0	31.7	36.7	8.3	8.3	100.0
□ 자녀교육과정	(44)	20.5	20.5	38.6	13.6	6.8	100.0
□ 자녀교육과정	(12)	33.3	16.7	33.3	16.7	.0	100.0
□ 자녀교육과정	(2)	.0	.0	100.0	.0	.0	100.0

문 7) 현재 주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분야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분석)

	구 성	
	사례수	%
■ 전 체	154	100.0%
언어치료	99	64.3%
근육운동(체육)	47	30.5%
인지(인지치료)	34	22.1%
음악치료	33	21.4%
미술치료	20	13.0%
사회성치료	17	11.0%
작업치료	12	7.8%
국어, 영어, 수학	12	7.8%
수영	11	7.1%
놀이치료	10	6.5%
물리치료	10	6.5%
심리치료(운동)	10	6.5%
개별 가정 방문	8	5.2%
감각통합치료	8	5.2%
태권도, 합기도, 검도	5	3.2%
기타	4	2.6%

문 8) 한 달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례수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	합 계
		%	%	%	%	%	%	%
■ 전 체	(177)	1.7	36.2	26.0	19.2	9.6	7.3	100.0
□ 장애인유형	(6)	.0	33.3	.0	33.3	.0	33.3	100.0
□ 지적장애	(5)	.0	60.0	20.0	.0	.0	20.0	100.0
□ 뇌병변장애	(9)	.0	44.4	11.1	33.3	11.1	.0	100.0
□ 정반장애	(72)	2.8	41.7	30.6	13.9	6.9	4.2	100.0
□ 발달장애	(57)	1.8	31.6	28.1	17.5	12.3	8.8	100.0
□ 언어장애	(6)	.0	.0	50.0	50.0	.0	.0	100.0
□ 지적장애	(2)	.0	.0	50.0	.0	50.0	.0	100.0
□ 지적장애	(16)	.0	43.8	6.3	31.3	12.5	6.3	100.0
□ 기타	(4)	.0	.0	25.0	25.0	25.0	25.0	100.0
□ 자녀교육과정	(19)	.0	15.8	31.6	15.8	26.3	10.5	100.0
□ 취학전	(38)	.0	28.9	23.7	15.8	13.2	18.4	100.0
□ 유치원	(60)	3.3	40.0	25.0	21.7	5.0	5.0	100.0
□ 초등 1-3학년	(44)	2.3	36.4	29.5	20.5	9.1	2.3	100.0
□ 초등 4-6학년	(12)	.0	58.3	25.0	16.7	.0	.0	100.0
□ 고등학생	(2)	.0	100.0	.0	.0	.0	.0	100.0

문 9)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 분야는?

	사례수	언어치료	물리치료	감각운동 치료	교육비	기타치료	기타	합 계
		%	%	%	%	%	%	%
■ 전 체	(151)	46.4	4.6	2.0	33.8	10.6	2.6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6)	16.7	50.0	.0	33.3	.0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5)	100.0	.0	.0	.0	.0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8)	25.0	25.0	12.5	25.0	12.5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56)	48.2	1.8	.0	33.9	12.5	3.6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52)	36.5	.0	1.9	48.1	9.6	3.8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5)	80.0	.0	.0	20.0	.0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1)	100.0	.0	.0	.0	.0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14)	57.1	7.1	7.1	14.3	14.3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4)	75.0	.0	.0	.0	25.0	.0	100.0
□ 자녀교육과정	(18)	66.7	.0	5.6	22.2	.0	5.6	100.0
□ 자녀교육과정	(32)	65.6	6.3	.0	18.8	9.4	.0	100.0
□ 자녀교육과정	(53)	45.3	7.5	1.9	37.7	5.7	1.9	100.0
□ 자녀교육과정	(36)	30.6	2.8	2.8	41.7	22.2	.0	100.0
□ 자녀교육과정	(10)	10.0	.0	.0	60.0	10.0	20.0	100.0
□ 자녀교육과정	(1)	.0	.0	.0	.0	100.0	.0	100.0

문 10)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부모님만 응답)

	사례수	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사교육 기관이 부족해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사교육을 할필요가 없어서	기타	합 계
		%	%	%	%	%	%
■ 전 체	(28)	10.7	14.3	67.9	3.6	3.5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3)	.0	.0	100.0	.0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11)	9.1	18.2	63.6	.0	9.1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11)	18.2	9.1	63.6	9.1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1)	.0	100.0	.0	.0	.0	100.0
□ 장애인교육차별사례 유형	(2)	.0	.0	100.0	.0	.0	100.0
□ 자녀교육과정	(4)	25.0	.0	50.0	.0	25.0	100.0
□ 자녀교육과정	(10)	10.0	20.0	60.0	10.0	.0	100.0
□ 자녀교육과정	(9)	.0	11.1	88.9	.0	.0	100.0
□ 자녀교육과정	(4)	25.0	25.0	50.0	.0	.0	100.0
□ 자녀교육과정	(1)	.0	.0	100.0	.0	.0	100.0

주 제	장애학생 私교육비 실태조사 발표
엮 은 이	장애인교육권연대
펴 낸 이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
펴 낸 날	2004년 6월 23일
펴 낸 곳	장애인교육권연대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 4층
전 화	02-2670-9405
팩 스	02-2670-9305
홈페이지	edu.sy.to
이 메 일	eduable@jinbo.net
값	3000원 이 자료집의 수익금은 장애인교육권연대투쟁기금으로 쓰입니다.

※ 이 자료 편집의 저작권은 모두 장애인교육권연대에게 있습니다.